

1. 다음 중 ‘지구’의 상의어는 무엇입니까?

- ① 화성 ② 행성 ③ 수성 ④ 금성 ⑤ 천왕성

2. 다음 중 반의어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소년 - 소녀 ② 어른 - 아이 ③ 열다 - 닫다
④ 생선 - 물고기 ⑤ 올라가다 - 내려가다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탁자, 책상과 같은 큰 ㉡가구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은 ㉡의 하의어이다.
② ‘침대’는 ㉡의 하의어가 될 수 있다.
③ ㉢은 ‘머리가 나쁘다’의 ‘머리’와 관련 있는 뜻이다.
④ ㉢과 ㉣은 본래 의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⑤ ㉤은 ‘생명이나 신체 등에 입은 손해’라는 뜻으로 ‘가해’의 유의어이다.

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것이 나머지와 다른 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②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한다.
③ 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④ 소미가 손에 묻은 모래를 탈탈 털었다.
⑤ 영훈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뜻이 서로 반대인 말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6. 다음 중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 ① 꽃 - 백합 ② 새 - 까치 ③ 서점 - 책방
④ 명절 - 추석 ⑤ 교통수단 - 버스

7.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당근 생물 음식 야채 수박

채소와 유의 관계에 있는 말은 _____입니다. 농작물, 식품 등은
이 말의 상의어이지만, _____은/는 하의어에 해당합니다.

8.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쓰세요.



9. 밑줄 친 ㉠과 ㉡의 의미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마다 강아지가 모두 한 마리씩 있다고 ㉡가정해 보자.

- ① 뜻이 서로 반대인 말이야.
- ② ㉠이 ㉡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
- ③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뜻이 서로 관련 있는 말이야.
- ④ ㉡은 ‘가족으로 연결된 생활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야.
- ⑤ 과일 ‘배’와 물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동형어 관계에 있지.

10. 단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떠올려 쓰세요.

① ‘공통점’의 반의어: _____

② ‘탬버린’의 상의어: _____

11. 다음 대화를 읽고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유정: ‘기쁜 얼굴’과 ‘얼굴이 두껍다’의 ‘얼굴’은 뜻이 서로 관련이 있어.

민규: 맞아. 따라서 둘은 서로의 동형어라고 할 수 있지.

소진: ‘낯’은 ‘얼굴’과 뜻이 비슷한 말이므로 두 말은 유의어야.

12. 밑줄 친 말의 동형어를 사용해 짧은 문장을 만드세요.

불에 타다.

1. 다음 중 단일어는 무엇입니까?

- ① 과자 ② 쌀밥 ③ 소고기 ④ 밤하늘 ⑤ 꿈나무

2. 다음 중 파생어끼리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덧신 - 태양 ② 꿀떡 - 인절미 ③ 팔빙수 - 손수건
④ 겁쟁이 - 햇곡식 ⑤ 맨바닥 - 호두나무

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단어 중 합성어를 모두 찾아 쓰세요. (정답 3개)

현이는 누나와 함께 시장에 가서 풋고추와 콩나물을 샀다. 아버지께서 맛있는 국밥을 끓여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후식으로는 무지개떡과 햇과일도 샀다.

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연이는 주말을 맞아 ㉠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아름다운 ㉡ 봄꽃을 구경하며 자전거도 타고, 점심에는 돛자리를 깔고 앉아 ㉢ 도시락을 먹었다. 도시락으로 준비해 간 ㉣ 주먹밥과 ㉤ 풋사과는 무척 맛이 있었다.

- ① ㉠과 ㉡은 모두 단일어이다.
② ㉠과 ㉡은 모두 복합어이다.
③ ㉢은 뜻이 있는 말 두 개가 합쳐진 말이다.
④ ㉢과 ㉣은 각각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⑤ ㉤의 '풋-'은 뜻을 더해 주는 말로 혼자 쓰일 수 없다.

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이것은 여러 개로 쪼개면 본래 뜻이 없어져 더 나눌 수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6. 밑줄 친 부분 중, 항상 다른 말에 붙어 뜻을 더해 주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맨손 ② 풋콩 ③ 국그릇 ④ 욕심쟁이 ⑤ 말썰꾸러기

7. 밑줄 친 단어 중 단일어는 모두 몇 개입니까?

윤호는 가게에 가서 햇밤과 돼지고기를 산 다음, 점심으로 미역국을 먹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8. 다음 중 합성어가 쓰이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산딸기가 빨강계 잘 익었다.
② 나는 물김치를 가장 좋아한다.
③ 책가방에 든 것이 많아 무척 무겁다.
④ 장이 열리자 수많은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⑤ 보나는 배가 몹시 고파서 밥그릇을 싹싹 긁어 먹었다.

9. 다음 중 복합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합성어	파생어
①	고무신, 풋고추	늦여름, 밥그릇
②	늦여름, 풋고추	고무신, 밥그릇
③	고무신, 손수건	밤나무, 멧쟁이
④	밤나무, 손수건	사냥꾼, 욕심꾸러기
⑤	사냥꾼, 멧쟁이	손수건, 욕심꾸러기

10. 다음 밑줄 친 말이 뒷말에 붙어 더해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풋 <u>콩</u>	풋 <u>감</u>	풋 <u>사과</u>
--	------------	------------	-------------

- ① 신 ② 매운 ③ 덜 익은 ④ 더 많은 ⑤ 아주 큰

11. ㉠, ㉡에 알맞은 말을 빈칸에 쓰세요.

‘나무꾼’은 뜻이 있는 말 ‘나무’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인 ‘(㉠)’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짜임으로 볼 때 ‘나무꾼’은 복합어 중에서도 (㉡)어로 분류됩니다.

㉠ _____ ㉡ _____

12. 앞에서 배운 파생어를 하나 떠올려 쓰고, 이 단어를 사용해 짧은 문장을 만드세요.

떠올린 단어: _____

짧은 문장: _____

1. 다음 중 밑줄 친 말이 관형어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밥을 담다 ② 나무가 자라다 ③ 날카로운 이빨
④ 아기가 사랑스럽다 ⑤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

2. 다음 중 문장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2개)

찬우가 어제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야구 시합을 재미있게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중 독립 성분이 쓰이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영재야, 너 지금 오고 있니?
② 어머니, 실수로 물을 쏟아 버렸네.
③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④ 하나, 둘, 셋까지 세면 바로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⑤ 아차, 나오기 전에 집에 전화하는 것을 깜빡 잊었잖아?

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는 ㉠ 채소입니다. 감자는 물이 부족하거나 차가운 흙에서도 ㉡ 잘 자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길고 ㉢ 추운 나라에서도 농사를 짓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이 많고 서늘한 강원도 지방에서 감자 ㉣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 ① ㉠ 은 독립어이다.
② ㉠, ㉡ 은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③ ㉡ 은 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말이다.
④ ㉢, ㉣ 은 행동이나 상태 등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⑤ ㉣ 은 이 문장 안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성분이다.

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이것은 문장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 각 문장 성분의 이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2개)

귀여운 사슴이 울타리를 폴짝폴짝 뛰어넘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보어 ② 주어 ③ 목적어 ④ 부사어 ⑤ 독립어

7.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를 찾아 쓰세요.

지난 금요일 주아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문법을 공부했다.

㉠주어: _____ ㉡목적어: _____ ㉢서술어: _____

8.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쓰세요.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 되었다.

9. 문장 안에서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은 무엇입니까?

- ① 보어 ② 주어 ③ 관형어 ④ 독립어 ⑤ 서술어

10. 다음 문장을 주성분만 남기고 바르게 줄여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규리가 여름 캠프에서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 ①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② 규리가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③ 규리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④ 규리가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⑤ 여름 캠프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11. 문장 성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세요.

나래: 독립어는 ‘되다’나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이야.
은상: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는 서술어에 해당돼.
선호: 부속 성분은 문장 안에서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해.
보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모두 문장의 주성분이야.

12. 목적어와 부사어, 서술어를 모두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우리 가족이 _____

1. 다음 중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 ① 둘 ② 한 ③ 이것 ④ 내일 ⑤ 첫째

2. 다음 중 형용사끼리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다 - 오다 ② 얇다 - 신다 ③ 맵다 - 맷다
④ 겨루다 - 새기다 ⑤ 엄격하다 - 허름하다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고라니는 우리나라에 ㉡ 많이 서식하는 사슴과 동물입니다. 고라니는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의 경우 송곳니가 ㉢ 발달했습니다. 털은 ㉣ 굵고 거칠며, 갈색과 노란색을 띵니다. 고라니는 주로 갈대밭이나 나무 ㉤가 많은 곳에서 풀을 먹고 삽니다.

- ① ㉠은 명사이다.
② ㉡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준다.
③ ㉢과 ㉣은 모두 감탄사에 속한다.
④ ㉤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 ㉤은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4. 다음 중 부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오늘은 바람이 무척 차다.
② 집에 돌아오면 손부터 먼저 씻어라.
③ 이 음식은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다.
④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린다.
⑤ 늦을 것 같을 때에는 미리 연락해 줄 수 있겠니?

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이것은 대상의 수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6. 다음 밑줄 친 말들 중 조사는 모두 몇 개입니까?

현수와 지수가 할머니 생신을 맞아 함께 편지를 쓰고, 선물도 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7. 다음 밑줄 친 말의 품사를 쓰고, 이 말이 꾸며 주는 말을 찾아 쓰세요.

나 내일부터 아주 열심히 운동할 거야.

㉠ 품사: _____ ㉡ 이 말이 꾸며 주는 말: _____

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 ㉡, ㉢의 품사가 각각 무엇인지 빈칸에 쓰세요.

우아,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합창 대회에 나가네.

㉠

㉡

㉢

㉠: _____ ㉡: _____ ㉢: _____

9.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품사는 무엇입니까? (정답 2개)

- ① 부사 ② 명사 ③ 조사 ④ 감탄사 ⑤ 관형사

10. 다음 중 밑줄 친 두 단어의 품사가 각각 대명사와 관형사인 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고향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② 그는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③ 많은 것이 변했지만 옛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④ 우리는 부모님께 놀이공원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
⑤ 선생님께서는 내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11. 품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세요.

지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를 명사라고 해.
승연: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로 분류되지.
보영: 조사와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항상 형태가 달라져.
우석: 부사는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 줄 수도 있어.

12.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품사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 짧은 문장을 만드세요.

경치/가/ 아름답다.

1. 다음 중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이모 ② 삼촌 ③ 가격 ④ 할머니 ⑤ 할아버지

2. 다음 중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르게 고쳐 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북 → 책 ② 컬러 → 색깔 ③ 러브 → 사랑
④ 헤어 → 머리카락 ⑤ 큐트하다 → 러블리하다

3. 다음 중 우리말을 바르게 쓴 문장은 무엇입니까?

- ① 문상 한 장만 주세요.
②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③ 네 새로운 헤어 스타일이 아주 멋지시다.
④ 어제 할머니께서 찌는 소갈비를 사 주셨어.
⑤ 이 옐로우 스웨터에는 이 바지가 잘 어울릴 것 같아.

4.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서윤: 나는 이 스커트를 살래. 요즘엔 ‘꾸안꾸’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

유진: ‘꾸안꾸’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서윤: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라는 뜻이야. 너 줄임 말 잘 모르는구나?

- ① 서윤이는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② 치마 대신 ‘스커트’를 쓰면 고급스러워 보인다.
③ 유진이는 비속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④ ‘꾸안꾸’와 같은 말을 많이 쓰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⑤ ‘꾸안꾸’와 같은 말을 자주 쓰면 우리말 지키기에 도움이 된다.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 중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몇 개입니까?

그레이 색상의 스니커즈를 신은 삼촌이 오늘따라 무척 멋지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 준호 생일에 생선 뭐 살 거야? 난 옷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 보고 깜놀했잖아.

- ① 줄임 말이 사용되었다.
② 지나친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우리말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했다.
④ ‘생선’은 ‘생일 선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깜놀했잖아’는 ‘깜짝 놀랐잖아’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7.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쓰세요.

‘음료 나오셨습니다’와 같이 사물에게 ()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8. 비속어 사용에 주의하며 밑줄 친 말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유빈이는 운동을 많이 해서 몸뚱이가 단단하다.

9. 다음 중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이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간식 타임 ② 예쁜 모자 ③ 최신형 컴퓨터
- ④ 편의점 도시락 ⑤ 제일 빠른 버스

10.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 정말 낮짝이 두껍구나?

- ① 줄임 말을 사용했다.
- ②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사용했다.
- ③ 사물에게 지나친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 ④ 외국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쓰지 않았다.
- ⑤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비속어를 사용했다.

11.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세요.

나은: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면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
지훈: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게 좋아.
수영: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는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해.
승우: 줄임 말을 많이 쓰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질 수 있어.

12. 지나친 높임 표현 사용에 주의하며, 다음 손님 질문에 대한 종업원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단어 '나오다'를 활용해 쓰세요.

손님: 불고기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음식은 언제 나오나요?

종업원: -----

정답

- 1 ② 2 ④ 3 ⑤ 4 ③ 5 반의어 6 ③ 7 야채, 당근 8 꽃 9 ⑤
 10 (1) 차이점 (2) 약기 11 민규 12 예) 언니가 자전거를 타다, 커피에 설탕을 타다 등 (해설 참조)

해설

- 1 '지구'의 상의어라고 했으므로 '지구'를 포함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상의어는 '행성'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구'와 같이 '행성'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 2 ④ '생선'과 '물고기'는 뜻이 비슷한 말이므로 유의어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반의어입니다.
- 3 ⑤ '피해'는 '해를 입다'라는 뜻이며, '가해'는 '해를 입히다'를 뜻하므로 두 단어는 반의어입니다.
- ③ '머리를 보호해야'의 '머리'는 목 위의 신체 기관을 말하며, '머리가 나쁘다'의 '머리'는 두뇌나 능력을 뜻합니다. 모두 신체 기관 '머리'에서 나온 관련 있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 ④ '불'은 '빛을 내며 뜨겁게 타는 물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물체' 등 서로 관련 있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 4 ③ 이 문장에서 '손'은 문맥상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등을 가리킵니다.
- ① ② ④ ⑤ 각 문장에서 '손'은 모두 팔 끝에 달린 신체 기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6 ③ '서점'과 '책방'은 모두 책을 사고파는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두 단어는 유의어입니다.
- ① ② ④ ⑤ 모두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에 포함되는 말이므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 7 '채소'와 뜻이 비슷한 말은 '야채'입니다. 또 '채소' 혹은 '야채'의 하의어를 찾아 쓰라고 했으므로, <보기>에서 '채소'나 '야채'에 포함되는 말은 '당근'입니다.
- 8 상의어는 '식물'이고 하의어는 '무궁화'인 말을 써야 하므로, '식물'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무궁화'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말은 '꽃'입니다.
- 9 문맥상 ㉠은 '가족으로 연결된 생활 공동체'를 뜻하며, ㉡은 '사실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를 뜻하므로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서로 뜻이 전혀 관련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동형어입니다. ⑤의 과일 '배'와 물 위를 떠다니는 탈 것 '배'는 ㉠, ㉡과 마찬가지로 소리는 같지만 서로 뜻이 전혀 관련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 ㉡과 마찬가지로 동형어입니다.
- 10 ① '공통점'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씁니다.
- ② '탤버린'을 포함하는 말을 씁니다.
- 11 '기쁜 얼굴'의 '얼굴'은 어떤 심리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 모양을 말하고, '얼굴을 씻다'의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모두 신체 기관 '얼굴'에서 비롯된 뜻이므로,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또 '낯'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한면을 가리키는 말로 '얼굴'과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따라서 '낯'은 '얼굴'의 유의어입니다.
- 12 밑줄 친 '타다'는 문맥상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타다'의 동형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해당 뜻과 전혀 다른 뜻의 '타다'를 넣어 완결된 문장을 썼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정답

- 1 ① 2 ④ 3 콩나물, 국밥, 무지개떡 4 ⑤ 5 단일어 6 ③ 7 ② 8 ④ 9 ④
 10 ③ 11 낱, 파생 12 예) 잠꾸러기, 내 동생은 잠꾸러기다. (해설 참조)

해설

- 1 ① ‘과자’는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
- 2 ④ ‘겹쟁이’는 뜻이 있는 말 ‘겹’과 뜻을 더해 주는 말 ‘쟁이’가 합쳐진 말이며, ‘햇곡식’은 뜻을 더해 주는 말 ‘햇’이 뜻이 있는 말 ‘곡식’에 합쳐진 말이므로 둘 모두 파생어입니다.
- 3 ‘콩나물’은 ‘콩/나물’, ‘국밥’은 ‘국/밥’, ‘무지개떡’은 ‘무지개/떡’ 등, 모두 뜻이 있는 말끼리 합쳐진 말이므로 세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풋고추’와 ‘햇과일’은 항상 다른 말에 붙어 뜻을 더해 주는 말 ‘풋’과 ‘햇’이 쓰였으므로 파생어이며, ‘누나’는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
- 4 ⑤ ‘풋사과’의 ‘풋’은 항상 다른 말에 붙어 뜻을 더해 주는 말이며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 ①, ② ‘친구’는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이며, ‘봄꽃’은 뜻이 있는 말 ‘봄/꽃’으로 나눌 수 있는 합성어입니다.
- ③ ‘도시락’은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
- ④ ‘도시락’은 단일어이고, ‘주먹밥’은 뜻이 있는 말 ‘주먹/밥’으로 나눌 수 있는 합성어입니다.
- 6 ③ ‘국’은 고기, 채소 따위에 물을 붓고 끓인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말에 붙지 않고 혼자 쓰일 수 있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 ①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 ② ‘풋’은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 ④ ‘쟁이’는 ‘어떤 특징이 많은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 ⑤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 7 ‘햇밤’은 뜻을 더해 주는 말 ‘햇’이 뜻이 있는 말 ‘밤’에 합쳐진 말이고, ‘돼지고기’는 뜻이 있는 말 ‘돼지/고기’, ‘미역국’은 뜻이 있는 말 ‘미역/국’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들은 모두 복합어입니다. ‘가게’와 ‘점심’은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
- 8 ④ ‘장사꾼’은 뜻이 있는 말 ‘장사’에, 항상 다른 말에 붙어 뜻을 더해 주는 말 ‘꾼’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파생어입니다.
- ① ‘산딸기’는 뜻이 있는 말 ‘산/딸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 ② ‘물김치’는 뜻이 있는 말 ‘물/김치’가 합쳐진 말입니다.
- ③ ‘책가방’은 뜻이 있는 말 ‘책/가방’이 합쳐진 말입니다.
- ⑤ ‘밥그릇’은 뜻이 있는 말 ‘밥/그릇’이 합쳐진 말입니다.
- 9 ① ‘풋고추’는 뜻을 더해 주는 말 ‘풋’이 쓰였으므로 파생어이며, ‘밥그릇’은 뜻이 있는 말 ‘밥/그릇’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 ② ‘늦여름’은 뜻을 더해 주는 말 ‘늦’이 쓰였으므로 파생어입니다.
- ③ ‘밤나무’는 뜻이 있는 말 ‘밤/나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 ⑤ ‘사냥꾼’은 뜻을 더해 주는 말 ‘꾼’이, ‘멋쟁이’는 뜻을 더해 주는 말 ‘쟁이’가 쓰였으므로 파생어입니다. ‘손수건’은 뜻이 있는 말 ‘손/수건’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 11 ‘나무꾼’은 뜻이 있는 말 ‘나무’에 뜻을 더해 주는 말 ‘꾼’이 합쳐진 말이므로 파생어입니다.
- 12 파생어는 뜻이 있는 말에, 뜻을 더해 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짜임을 가진 단어를 한 가지 떠올려 쓴 다음, 이 단어를 사용해 완결된 문장을 만들었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정답

- 1 ③ 2 ②, ④ 3 ④ 4 ⑤ 5 주성분 6 ①, ⑤ 7 ㉠ 주아가, ㉡ 문법을, ㉢ 공부했다
8 보어 9 ④ 10 ② 11 은상, 보라 12 예) 눈사람을 열심히 만들었다. (해설 참조)

해설

- 1 ③ ‘날카로운’은 사물 ‘이빨’을 꾸며 주며 ‘어떤’에 해당하므로 관형어입니다.
① ‘밥을’은 동작 ‘담다’의 대상이 되며 ‘무엇을’에 해당하므로 목적어입니다.
② ‘자라다’는 주어 ‘나무가’의 동작을 풀이한 말이며 ‘어찌하다’에 해당하므로 서술어입니다.
④ ‘아기가’는 서술어 ‘사랑스럽다’의 주체이며 ‘누가’에 해당하므로 주어입니다.
⑤ ‘빠르게’는 서술어 ‘달리다’를 꾸며 주며 ‘어떻게’에 해당하므로 부사어입니다.
- 2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맛있는’은 특정한 대상 ‘치킨’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재미있게’는 서술어 ‘보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입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속합니다.
- 3 ④ 느낌, 놀람, 부름, 대답에 해당하는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① 부름에 해당하는 ‘영재야’가 쓰였습니다.
② 놀람에 해당하는 ‘어머나’가 쓰였습니다.
③ 대답에 해당하는 ‘예’가 쓰였습니다.
⑤ 놀람에 해당하는 ‘아차’가 쓰였습니다.
- 4 ⑤ ‘농사를’은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며, 동작 ‘짓다’의 대상이 되는 말이므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① ‘채소입니다’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입니다.
② ‘채소입니다’는 서술어이며, ‘잘’은 서술어 ‘자랍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속하지만, 서술어는 주성분입니다.
③ 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말은 서술어이며, ‘잘’은 부사어입니다.
④ ‘추운’은 ‘나라’를 꾸며 주는 관형어입니다. 행동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은 주어입니다.
- 6 ① ‘귀여운’은 특정한 대상 ‘사슴’을 꾸며 주는 말이므로 관형어입니다.
⑤ ‘뛰어넘었습니다’는 주어 ‘사슴이’의 행동을 풀이하는 말이므로 서술어입니다.
② ‘사슴이’는 동작 ‘뛰어넘었습니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입니다.
③ ‘울타리를’은 동작 ‘뛰어넘었습니다’의 대상이 되는 말이므로 목적어입니다.
④ ‘폴짝폴짝’은 서술어 ‘뛰어넘었습니다’를 꾸며 주는 말이므로 부사어입니다.
- 7 ‘누가’에 해당하며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아가’가 주어, ‘무엇을’에 해당하며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법을’이 목적어, ‘어찌하다’에 해당하며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공부했다’가 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 8 문맥상 빈칸에는 ‘되었다’ 앞에서 이 말을 보충해 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되다’ 앞에서 뜻을 보충해 주는 말의 문장 성분은 보어입니다.
- 10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이라고 했으므로, 문장 안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인 주성분만 남기고 줄여 쓴 답을 골라야 합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 나타난 주성분은 동작의 주체인 ‘규리가(주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비빔밥을(목적어)’, 주어의 동작을 풀이한 ‘만들었습니다(서술어)’입니다. 보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11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은 보어입니다. 또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은 주성분입니다.
- 12 주어 ‘가족이’가 주어에 있으므로, 주어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목적어와 부사어, 서술어를 모두 사용해 완결된 문장을 완성했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정답

1 ③ 2 ⑤ 3 ③ 4 ④ 5 수사 6 ③ 7 ㉠ 부사, ㉡ 열심히 8 ㉠ 감탄사,
㉢ 대명사, ㉣ 동사 9 ①, ⑤ 10 ② 11 승연, 우석 12 예) 아이스크림이 차갑다. (해설 참조)

해설

- 1 '이것'은 어떤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말입니다.
- 2 ⑤ '엄격하다'는 '말이나 태도 따위가 매우 엄하고 철저하다'는 뜻이므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말이며, '허름하다'는 '좁 힌 듯하다'는 뜻이므로 역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말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 ② '신다'는 행동을 나타낸 말이므로 동사입니다.
- ③ '땀다'는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입니다.
- 3 ③ '발달했습니다'는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 '굵고'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형용사입니다.
- ① '고라니'는 특정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 말이므로 명사입니다.
- ② '많이'는 문맥상 뒷말 '서식하는'을 꾸며 주고 있습니다.
- ⑤ '가'는 조사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 4 ④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줍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지나고', '오길', '기다린다', 형용사는 '따뜻한'이며, 이 말들을 꾸며 주는 부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① 형용사 '차다'를 꾸며 주는 부사 '무척'이 쓰였습니다.
- ② 동사 '씻어라'를 꾸며 주는 부사 '먼저'가 쓰였습니다.
- ③ 형용사 '매워서'를 꾸며 주는 부사 '너무'가 쓰였습니다.
- ⑤ 동사 '연락해'를 꾸며 주는 부사 '미리'가 쓰였습니다.
- 6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품사입니다. '와'는 둘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며, '가'는 주체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조사입니다. '도'는 '마찬가지로'의 뜻을 더해 주는 조사입니다.
- 7 밑줄 친 '아주'는 뒤에 오는 부사 '열심히'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 줄 수 있으므로 '아주'의 품사 또한 부사입니다.
- 8 '우아'는 감탄이나 놀람을 나타낸 말이므로 감탄사이며,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신 나타낸 말이므로 대명사입니다. '나가네'는 행동을 나타낸 말이므로 동사입니다.
- 9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속 성분입니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 10 ②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그'와, 명사 '생각'을 꾸며 주는 관형사 '무슨'이 쓰였습니다.
- ① 명사 '해'를 꾸며 주는 관형사 '여러'가 쓰였으나 '고향'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 ③ '많은'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형용사이며, '옛'은 명사 '기억'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기본형 '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으며 관형사 단독으로만 존재합니다.
- ④ '우리'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이나, '놀이공원'은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 ⑤ '선생님'은 특정한 직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부탁하셨다'는 행동을 나타낸 말이므로 동사입니다.
- 11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사입니다. 조사와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12 주어진 문장에는 명사(경치), 조사(가), 형용사(아름답다)가 쓰였습니다. 명사, 조사, 형용사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완결된 문장을 만들었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정답

- 1 ③ 2 ⑤ 3 ② 4 ④ 5 ② 6 ② 7 높임 8 몸이 9 ① 10 ⑤
 11 지훈, 수영 12 예) 불고기는 5분 뒤에 나옵니다. (해설 참조)

해설

- 1 '가격'은 사람이 아닌 물건의 가치를 나타낸 말이므로 높임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위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이므로 높임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 2 ⑤ '큐트'는 '귀엽다'는 뜻의 외국어이며, '러블리'는 '사랑스럽다'는 뜻의 외국어입니다. 따라서 '큐트하다'를 우리말로 바르게 고쳐 쓰려면 '귀엽다'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3 ② 주문을 한 주체는 손님이므로 '주문하신'이란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오는 것은 '피자'이므로 사물인 피자를 높여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 ① '문상'은 '문화 상품권'의 줄임 말입니다.
- ③ '헤어 스타일'은 '머리 모양'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또 '머리 모양'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멋지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 ④ '절다'는 비속어이므로 '대단하다' 등의 표현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⑤ '엘로우'는 '노란색'이라는 뜻의 외국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 4 ④ 주어진 대화를 보면, 서윤이가 쓴 줄임 말을 유진이가 알아듣지 못해 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서윤이는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과 줄임 말을 사용했습니다.
- ② '스커트'는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이 쓰인 예시입니다.
- ⑤ '스커트'는 '치마'라는 뜻의 외국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면 우리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5 '그레이'는 '회색'을 뜻하는 외국어이며, '스니커즈'는 '운동화'를 뜻하는 외국어입니다.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표현이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멋지시다'의 경우, '멋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삼촌'이므로 높임말을 쓴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 6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 말이며, '깜놀'은 '깜짝 놀라다'의 줄임 말입니다. 줄임 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등 우리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풀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입니다.
- 8 '몸뚱이'는 '몸'을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
- 9 ① '타임'은 '시간'이라는 뜻의 외국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를 쓰는 것은 무분별한 표현입니다.
- ③, ⑤ '컴퓨터'와 '버스'는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10 '낯짝'은 '얼굴'을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
- 11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줄임 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2 '나오다'를 활용하여 문장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맥상 '나오는' 것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며, 음식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오다'에 높임 표현을 쓰지 않고 손님의 물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답을 완결된 문장으로 썼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